

# 인도네시아 관광시장 동향(5월)

'26.5.25(월) 한국관광공사 / 자카르타지사

## □ 시장 동향

### ○ (방한) 2026년 3월 인니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현황

- 26.3월 인도네시아 방문 외국인 수는 총 1,088,166명으로 전년 동기(984,769명) 대비 10% 증가했으나, 전월('26.2월, 1,159,660명) 대비로는 6% 감소하였음. 주요 방문객 국적은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중국, 동티모르, 인도, 미국, 영국 순임.
- '26.3월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793,160명으로 전년 동기(582,080명) 대비 36%, 전월('26.2월, 701,070명) 대비 13% 증가하였음. 주요 원인은 라마단 종료 후 이어진 르바란(Eid Al-Fitr) 연휴(3.19~25)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점임. 주요 방문국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중국, 일본, 태국, 동티모르, 호주, 베트남, 한국 순이며, 한국은 전월에 이어 10위 자리를 유지함

<2025-2026 인니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단위 : 명)>

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5	1,156,012	1,022,894	984,769	1,164,539	1,306,000	1,417,096	1,481,346	1,505,220	1,394,910	1,348,993	1,199,007	1,405,860	15,386,646
'26	1,188,420	1,159,690	1,088,166	-	-	-	-	-	-	-	-	-	3,436,276
아웃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5	990,110	759,070	582,080	926,600	585,800	727,560	869,930	684,930	665,910	725,420	794,730	823,770	9,165,910
'26	1,006,400	701,070	793,160	-	-	-	-	-	-	-	-	-	2,500,630

\*[링크](#) (Badan Pusat Statistik, 2026)

\*[링크](#) (Badan Pusat Statistik, 5.4)

### ○ (방한) 달러-루피아 환율 동향

- 달러-루피아 환율이 미화 1달러당 17,676\*루피아까지 약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저하와 해외여행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루피아 가치의 추가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외환시장 개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루피아 환율을 미화 1달러당 16,800~17,500 루피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링크](#) (Tempo, 5.20)

### ○ 2026년 신규 국제선 운항 동향

- 티웨이 항공: 자카르타-인천 주 5편 운항 (04.29~)
- 스쿠트 항공: 방카 블리퉁 탄중 판단-싱가포르 주 2편 운항 (5.03~)
- 센트룸에어: 발라-타슈켄트 주 2편 운항 (6.01~)
- 스프링에어: 자카르타-광저우 주 3편 운항 (6.16~)
- 스프링에어: 자카르타-선전 주 2편 운항 (6.17~)

- 스쿠트 항공: 칼리만탄 폰티아낙-싱가포르 주 3편 운항 (6.29~)
- 그레이터베이항공: 수라바야-홍콩 주 4편 운항 (9.27~)

\*[링크](#) (indo.miles, 4.30)

## ○ 경쟁국 동향

- 일본 관광청은 SNS를 통해 봄철 일본 관광지를 지속 홍보. 대만관광청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대만 트래블 페어'를 개최한 데 이어, 자카르타와 메단에서 현지 워크숍을 잇달아 진행하며 인니 아웃바운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음

\*[링크](#) (JNTO, 2026)

\*[링크](#) (SWA, 5.3)

\*[링크](#) (Astindo Sumut, 5.8)

## □ 정책 동향

### ○ 인도네시아 정부, 국내선 항공권 부가가치세 면제

- 최근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유류할증료 비용의 인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26년 4.25~6.23 기간 중 국내선 항공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면제 하였으나, 본 정책은 국제선 항공편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글로벌 유가 변동에 따라 '26년 5월부터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최대 50%까지 인상 하는 방안을 승인함

\*[링크](#) (DJP Online, 5.5)

\*[링크](#) (Tempo, 5.15)

### ○ (관광교류) 인도네시아 법무부, 인니 방문 카자흐스탄 및 마카오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

- 인도네시아는 '26.5.11부로 카자흐스탄 및 마카오 국적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본격 시행함.

\* (참고) 이번 조치는 카자흐스탄과 마카오가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온 것에 대응하여,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 것임. 한편 인니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등 주요 국적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무비자 정책 도입을 지속 검토 중임.

\*[링크](#) (Antara Bali, 5.13)

\*[링크](#) (Social Expat Indo, 5.21)

## □ 시사점

- 5월에는 미국이란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항공권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해외여행 수요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다만, 5월 내 노동절, 예수 승천일, 이돌 아드하(Idul Adha) 등 다수의 연휴가 집중되어 있어 단기 해외여행 수요 확대가 기대됨. 특히 티웨이항공(Tway Air)의 한-인니 직항 노선 신규 취항과 200만 루피아(약 17만 원)대 특가 프로모션은 방한 수요를 견인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향후 인니 방한객 3인 이상 시범적 무비자 제도 도입 또한 준비되고 있어 이에 따라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를 겨냥해 고부가가치 테마 상품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마케팅 및 프로모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